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69호 [무제 제2312호] 주제99 (2010)년 6월 18일 (금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일군대표단이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한 구르자치구무장경찰총대 부총대장인 형위지단장이 해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일군대표단이 선물을 올리였다. 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을 신강위 본사기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 기념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에 즈음하여 노르웨이, 스웨덴, 인디아, 로씨야에서 집회, 강연회, 도서, 사진전, 사회화감상회 8일부러 12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행사장들의 전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행사장들에는 절세의 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노르웨이공산당, 스웨덴공산당, 인디아대의정책연주소, 로씨야 아그메가트인포름회사의 인사들과 군중이 행사들에 참가하였다. 노르웨이공산당 위원장은 집회에서 한 연설에서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돐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조선로동당은 더욱 강화발전되었으며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졌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세기 말엽 미제를 피수로 하는 제국주의련

## 사회주의위업수행을 추동하는 불멸의 가치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지난 15년간 사상사업에 관한 고전적로작들을 수많이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15년이 되었다. 사회주의사상사업의 본질과 기본 입부, 원칙, 실현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주체84 (1995)년 6월 19일 로작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을 앞세우는것에 즈음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탁월한 사상리론들이 집대성되어있는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어 혁명과 건설을 힘차게 전진시켜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 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15년간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주체의 사상론의 기치 따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실현하며 강성대국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이 세계를 몰아쳐오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 사상리론을 옹호고수하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로작들을 편이 발표하시어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진로를 밝혀주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혁신을 강화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로작들에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일하도록 할데 대한 사상이 명시되어있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드립없는 의지로 밝혀져있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주체84 (1995)년 6월 19일 로작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을 앞세우는것에 즈음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탁월한 사상리론들이 집대성되어있는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어 혁명과 건설을 힘차게 전진시켜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 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15년간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주체의 사상론의 기치 따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실현하며 강성대국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이 세계를 몰아쳐오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 사상리론을 옹호고수하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로작들을 편이 발표하시어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진로를 밝혀주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혁신을 강화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로작들에는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618건설돌격대를 무어주신 1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618건설돌격대를 무어주신 10돐 기념보고회가 17일 고산 파수농장에서 진행되었다. 보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보고회장에 세워져있었다. 보고회장에는 또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고산파수농장을 세계에 자랑할 멋쟁이 청년군인들이 건설하자!》,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라는 구호판들과 선전화들이 세워져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장 김기남동지와 리태남 내각부총리, 백계룡 강원도당위원회 책임비서, 판계부본 일군들, 618건설돌격대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물로 보내신 물건기계를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었다. 김기남동지가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서는 당의 선군령도따라 천만 군민이 강성대국의 명마루를 향하여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618건설돌격대를 무어주신 10돐 기념보고회 진행

여기에는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명맥으로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선군명장의 신념과 의지가 구현되어있다고 하면서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방대한 건설과업을 618건설돌격대에 맡겨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백두산지구 혁명전진지, 혁명사적지를 혁명전진로상의 대전장으로 꾸리는데 대한 구상과 작전을 펼치신것은 주체의 혁명전통계승발전의 새로운 높고 단계를 열어나가는 혁명적사변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혁명전통교양을 보다 심화

## 대고조성투쟁의 새 소식 희천발전소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

조선인민군 김웅철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과 말은 대상공사 기본적으로 완공

장성대국건설의 최전선인 희천발전소건설장에서 천만군민을 격동시키는 혁신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웅대한 구상을 받들고 희천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김웅철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공사에 진입한 때로부터 불과 1년 남짓한 사이에 부대가 맡은 기본물길굴뚝기와 확장, 피복공사, 발전기설치공사와, 압력철탄로설치를 위한 콘크리트기파를 빛나게 수행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희천발전소 건설자들은 발전소건설에서 새로운 속도를 창조하여 선군조선의 기상을 다시 한번 반향이 높이 떨칠것입니다.》 얼마전 부대가 맡은 물길굴의 마지막구간에 대한 콘크리트피복공사와 발전기설치공사를 완공의 시각을 맞이한 이곳 군인건설자들은 뚝이오르는 격정을 안고 수도 중앙의 하늘을 우러러 《만세!》의 환호를 목청껏 치렀었다. 시대를 격동시키는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승리의 보고를 올리는 군인건설자들의 열광마디에는 자기들

## 사리원경기장이 개건된다

황해북도에서 도소재지에 있는 사리원경기장을 새로 개건하기 위한 공사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임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보다 명망하고 유쾌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리원경기장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수십년전에 여러차례나 찾아주시었던 곳입니다. 지난해에도 끊임없는 선군장정의 길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또다시 사리원 경기장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은 정어린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황해북도에서는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강력한 건설명령을 조직하고 사리원경기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하기 위한 투쟁으로 대승을 힘있게 불어넣고있다. 사리원경기장은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다채로운 대중체육활동과 문화정서생활, 체육선수들의 훈련과 경기를 충분히 보장할수 있는 현대적인 체육회관까지 훌륭히 개건되게 된다. 새로 개건되는 사리원경기장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경기관람과 대중체육활동의 편의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관망성이 현대적으로 꾸러지게 되며 실내탁구장, 야외바드민턴장과 정구장 등과 바둑, 장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유희오락시설들이 이른바 갖추어지게 된다. 뿐만아니라 온 나라에 대중화되고있는 집단체조뿐만 아니라 보장할수 있는 모든 조건들도 충분히 갖춘 경기장으로 개건되게 된다. 또한 대형전자현시판 등 체육선수들의 경기와 훈련보장에 필요한 현대적인 설비들이 갖추어지게 된다. 경기장 주변도 더 환하게 꾸러지게 된다. 지금 개건과정에서는 공사지



다그치고있다. 김정일동지께서 건설자들과 함께 일하시어... (Caption text describing the construction site and the role of the workers and the leader.)







# 경애하는 장군님따라 우리 당의 백승의 역사를 빛내여갈 신념과 의지 불멸의 당건설령도업적을 가슴깊이 심어주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제 53 (1964)년 6월 19일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전당, 전군, 전민의 한결같은 열망을 안으시고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은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고 우리 당과 혁명, 조국과 민족의 앞길에 찬란한 미래를 펼쳐준 력사적업적 사변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대를 이어 백두의 전설적위인을 높이 모시고 자주시대 혁명적당건설의 성스러운 력사를 창조해 나가게 되었으며 우리의 혁명과 건설에서는 일찌기 없었던 새로운 양양기가 펼쳐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가 시작된 때로부터 당사업을 물론,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부문 사업에서 새로운 전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니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혁신과 양양이 이루어졌습시다.》

덕천시당위원회 일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년을 맞으며 결출한 사상과

### 덕천시당위원회 일군들

학할만 명도로 우리 당을 백승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령도업적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속에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되찾고자 노력하는 나날을 긍지롭게 돌이켜보고있다.

시당위원회는 지난 기간 일군들부터 경애하는 장군님까지 이룩하신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사상사론적으로 가슴깊이 새기고 실천활동에 적극 구현하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시당위원회는 일군들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부터 철저 무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상사업을 강세우는데는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때 대하여》를 비롯한 로작원문학습을 심도있게 하도록 하였다.

한편 시당위원회는 시안의 모든 당조직들에서 자체학습과 집단 학습, 문답식 학습경연, 읽은책발표모임, 출판물보급선진, 기동출신운동대활동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온 시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당건설령도업적을 가슴깊이 체득하기 위한 혁명적 열정으로 뛰어넘어오도록 하였다. 특히 주마마 진행되는 단위별기동출신운동경연을 통한 령도업적선전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학습열의를 높여주는 데서 좋은 작용을 하였다.

이 나날에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근반세기에 이르는 당명도사는 조선로동당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강위력한 령도적정치조직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성스러운 년대기이며 혁명의 총대와 천만민민의 일심단결된 위력으로 우리 시 사회주의의 불멸성을 힘있게 과시하고 부강조국건설의 새 력사를 창조하여온 영광스러운 모퉁이였다것을 다시금 깊이 체득하게 되었다.

시당위원회는 시를 혁명적수령관이 더욱 철저히 선 단위로 만들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따라 배우는 연구실현을 보다 정중히 꾸리고 혁명사적지를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학습있게 벌려나가는 데 깊은 주의를 돌리었다.

이 과정에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적당건설의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당이여 수령의 사상과 명도를 실현하는 정치조직이라는 철리를 일관하게 구현

### 일군들

하서어 조선로동당을 명실공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우리 시대 혁명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내세우시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신데 이어 전당의 주체사상화의 기치를 높이 드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령도업적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지난 기간 아버지수령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 관철을 명도업적으로 삼고자 하는 뜻이 더욱 강해져서 사업의 중요한 요구로 제기하고 대중의 정신력발달에 커다란 힘을 넣었다.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당의 구호를 높이는 가슴마다 예전 시당위원회일군들은 당창건 65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경공업과 농업에 다나한 공헌을 위하여 인민생활향상을 더 전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과정에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적당건설의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당이여 수령의 사상과 명도를 실현하는 정치조직이라는 철리를 일관하게 구현

## 중심을 찾아 적극 일민화할 때

본사기자 최시흥

### 평양수지연필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평양수지연필공장을 찾으면 종업원들의 정신세계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모든 종업원들이 말보다 실천을 중시하고 30년간 한 하루의 결근도 없던 목숨처럼 성실하게 일하면서 남달리 높은 실적을 쌓아왔다. 그렇게 하고도 자신을 부단히 재교육하면서 입담청원을 이루어고있었다.

초급당비서는 그를 조선로동당 대렬에 빨리 세워주는것을 비단 그 한사람에 한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대중을 실천으로 보다 힘있게 추동하는 중요한 정치사업으로 간주하였다.

이렇게 되어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인영일동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의 소중함을 아끼며 하부발리 실현되도록 뜻을 기울여주었다.

조직과 집단의 깊은 관심과 방호속에 그는 지난 2월의 명칭을 계기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대렬에 들어서는 영예를 지니게 되었다.

이것은 종업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

그전에 무엇인가를 좀 해놓았다. 그 후부터는 근근히 평가를 바라던 사람들이 스스로 실적을 높이며 자신들을 맹렬히 돌이켜보게 되었다. 또한 누가 강요해서라도 일하는 사람만 열중하던 사람들은 보라,

평양수지연필공장을 찾으면 종업원들의 정신세계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모든 종업원들이 말보다 실천을 중시하고 30년간 한 하루의 결근도 없던 목숨처럼 성실하게 일하면서 남달리 높은 실적을 쌓아왔다. 그렇게 하고도 자신을 부단히 재교육하면서 입담청원을 이루어고있었다.

이것은 초급당위원회가 주체적인 당사업원칙과 방법의 요구대로 실천할 것을 평가하고 내세우는데서 실천을 제 일가는 기준으로 정하고 사업을 심화시켜나간 데 비결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실현은 사람들의 사업을 검증하는 기본 척도입니다.》

실적장 전공 인영일동무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대렬에 들어설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준 사실을 높이보자.

사실 지난 시기 일군들은 그의 속근은 마음대로 대하여 다는 헤아려 줄 수 없었다. 그런데 지난해말에 초급당비서로 새로 임명되던 손영호동무가 단위 실례를 료해할 때 매 사람의 실

《청춘을 빛나게 살자!》  
하늘을 뚫고 치솟아오르는 백두산선봉정원발전소 언덕에서 백열전을 방불케 하는 기상을 한몸에 느끼며 저모르게 달아오르던 마음, 마치 청춘시절로 되돌아간듯싶던 그 시각 나의 가슴에 활을 달아온것은 맑은 산소력에 걸린 이 글방이었다.

나의 속마음을 읽어보더라도 한탄 발전소건설을 책임진 청년일군은 이렇게 말했다.

《선군조선청년들의 영원한 맹목과 생각합니다.》

깊어지는 생각은 어쩔 수 없다.

청춘을 빛나게 살자!  
새길수록 비상한 의미가 가슴을 파고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새 세대들의 정신도덕적 품모를 보면 그 나라, 그 민족의 전도를 알 수 있다.》

누구에게나 청춘시절에 대한 추억은 아름답다.

꿈도 부도대 이상도 많았던 그 시절, 참된 인생의 사랑과 보람을 교차하는 글줄에서가 아니라 창조와 투쟁으로 맛보고 체험하고 가슴에 새겼던 그 시절을 어찌 증언없이 추억할 수 있겠는가.

올려온 청춘시절을 되새겨보노라면 아직은 소년단시절 선생님에게 철없이 물던 일이 떠오른다.

—선생님, 그럼 명퇴인인지 철도건설대원이 되겠습니까.  
—리수부엌을 돌리는데 분대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어문학시간에 단편소설

### 충정의 혈통

《해주—하성》서 온 편지》를 배우고 명퇴인임을 만나러 가겠다고 메를 쓰는 우리에게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해 주—하성이라는 사람이 해 주—하성에만 있겠는가. 동무들의 고향인 이 구지구를 황금산으로 가온 아버지, 어머니들이, 충화국을 졸업하고 집단원이라 아버지친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가고있는 청년분조 언니, 오빠들이 바로 명퇴인이라고는 같은 사람들이라고, 아버지친수령님께서 명도하시는 우리 나라 그 어디서나 청춘을

무릇 하나의 피골에서 대를 이어 갈라져나오는 계통을 두고 혈통이라고 하였다. 이것을 혁명투쟁사에서는 그 전통이 대를 이어 꿰뚫고 내려오는 기본줄기라고 하였다.

우리가 청춘을 두고 혈통을 논하는것은 그들이 바로 전세대가 이룩한 모든 업적과 전통, 위업을 계승해야 할 세대이기때문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청춘을 빛나게 살자!》, 여기에 있는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전인미답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실현해나가는 선군조선의 혁명적사상을 관통하는 충실성의 전통, 충정의 혈통이 비껴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 선군시대 청년들의 투쟁의 활동대인 대자연개조전투장에 나붙은 길지 않은 글방이 날이 갈수록 가슴을 파고드는 것은 이때문이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전통, 충정의 혈통이 대를 두고 이어지고있는 덕찬 전통에 대한 열렬한 사랑, 더없는 긍지...

우리에게는 이 사랑, 이 긍지가 생명이자 귀중하다. 우리가 미래를 띠는것도 이 위대한 전통이 있기때문이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뜻깊은 날을 맞으며 온 나라 인민들은 한마음으로 아뢰었다.

위대한 장군님 계시어 우리의 긍지, 충정의 혈통은 영원하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본사기자 최시흥

###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여

#### 선천군 고부리당위원회에서

여러건의 건설적의견들이 제기되었는데 그중에는 수십년전에도 볼 수 없었던 새우건의 그 지리에 다시 제방을 쌓아 물잡이를 한다던 자연호를 수로로 만든 200정보의 논에 물을 댈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매우 혁명적의견을 정확히 찾아 거기에 힘을 집중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늘 머리를 쓰고 작전을 잘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 불리요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야 합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올해농사작전을 하면서 지난해의 농사경험과 교훈을 정확히 찾는데 커다란 주목을 돌리었다.

여기에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물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원만히 풀지 못했었다 농장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대체로 작업기술원들에게만 맡겨두어 더 거두어 줄 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었다.

리당위원회는 이 문제를 놓고 모임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리당위원회는 모임에 앞서 당일군들과 관리위원회일군들이 농장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문제해결방도를 정확히 찾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농장원들속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었다. 물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결의에 넘쳐있다. — 주제 99 사업장에서 — 최시흥

#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해나가는것은 대고조승리의 근본담보

은 나라 전체 인민이 주체의 신념과 민족자존의 기상으로 강성대국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고전적로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때 대하여》를 발표하신 13년을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제 86 (1997)년 6월 19일에 발표하신 이 로작은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을 거부하며 나라의 자주적방위를 수호하고 민족적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힌 기념비적문헌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튼튼히 지킬것이며 주체의 한길을 따라 세계가 썩어내갈것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방위를 이룩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데서 전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 문제의 본질, 그 중요성과 의의, 이 혁명적원칙을 견지해나가는 데서 나타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완벽하게 밝혀주시였다. 로작의 사상사론은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자주력방과 지배주의의력사사이의 첨예한 대결중에서 우리 혁명이 승승장구하고 우리 조국이 자주의 강국으로 존엄떨치게 된 근본비결과 우리가 걸어온 주체의 길, 민족자주

의 길이 천만번 정당하다는것을 다시금 되새겨주고있다. 로작은 거기에 담겨진 사상사론의 절대적진리성과 독창성, 정당성으로 하여 발표되자마자 우리 인민들과 세계 혁명인민들속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사회주의위업, 인류자주위업수행에서 거대한 견인력과 생활력을 발휘하여왔다.

로작이 발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10여년간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생활과 혁명실천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된 나날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위대한 사상사론적투쟁이 있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정권타도사업과 사상문화혁명투쟁을 단호히 거부하고 주체의 사회주의 기치를 굳건히 고수하며 민족의 존엄을 온 세상에 빛내일수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명도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빛나게 실현하며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담보하는 생명선이라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으로 체득한 진리이다.

오늘 우리 조국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혁명대고조의 불길진료이 사회주의강성대국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굳건히 고수할것을 우리 인민의 자주적 요구와 혁명적 투쟁을 꽃피우기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 이 땅우에 기어

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온갖 원수들을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시 사회주의를 없애버리려고 갖은 음모를 일삼으며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방건설에 불어넣고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우리 인민의 자주적신념과 의지를 꺾을수 없다. 오늘 주체성과 민족성이 체질화된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서 새겨진 불타고있는것은 원수들에게 대한 치욕은 적개성과 불순심이며 대고조의 열풍으로 원수들에게 철추를 내리려는 열렬적의 기상이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선군령도밑에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맡겨놓고 제 몸을 개척해나가는 투철한 자주정신, 민족의 존엄을 온 세상에 떨치려는 드림있는 신념과 의지를 지니고 회천발전소 건설장소를 비롯한 대고조적전장마다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폭풍에서 자주의 강자로 자라난 천군만민의 사상정신력이 총폭풍일기에 혁명대고조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오를것이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켜나가는것은 우리 조국방위에 자력갱생의 강령대고조를 일떠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남의 힘을 믿고 남의 식을 따르던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내라고 했다. 자기식, 자기힘이 제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자기 식으로 해나가는것은 주체

성에 각성을 높이지 못하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지 못하면 중요한 원인이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본태가 굳건히 살아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고백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우월성을 높이 발휘해나가고있다.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적소유를 굳건히 지키고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생활을 꾸미며 사랑하며 공장, 기업소들에서 집단적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 혁명발마다에 사회주의 푸른 전야를 펼쳐놓고있다.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워도 사회주의의 날이 지게 세우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도 우리의 전통, 우리의 장단을 놓아하며 작물을 하나 찡작해도 민족성을 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시대의 명으로 완성하여 내놓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민이다. 주체로 존엄되고 민족의 기상이 약동하는 우리의 사회주의는 전체 인민의 생명으로, 생활로 되고있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온 세상에 빛내어내려나가는것이 우리 인민의 확고한 신념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풀없이 빛내어내려나가는 주체성과 민족성은 우리 혁명의 승미적전진을 위한 사상정신전원동력이며 우리 인민의 영원한 힘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굳건히 고수하며 이 땅우에 기어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울것이다.

리 강 철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돛에 즈음하여

## 녀맹원들의 경축모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돛에 즈음한 녀맹원들의 경축모임이 17일 개선문광장에서 진행되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뜻깊은 날을 맞이하는 온 나라 녀성들은 불세출의 위인을 당파 투쟁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다고 말했다.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46돛에 즈음하여 김일성종합대학과 김형직사범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 외국 유학생들의 지은글발표모임《수령님 녀성이 꽃피는 강산》이 17일 대동강의교단회관에서 진행되었다.

《김정일동지께서 드리는 노래》 합창으로 시작된 모임에서 유학생들은 인사기 《장군님의

강금화, 선교구역 남신1동 1층 101호에 설립한 한복실, 락양구역 동산동 녀맹원 우경애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뜻깊은 날을 맞이하는 온 나라 녀성들은 불세출의 위인을 당파 투쟁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다고 말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탁월한 사상과 불멸불욕의 령도로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 선군혁명의 강위력한 항도적력량으로 강화 발전시키시겠다고 하면서 그들은 주체의 애국적열의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장군님의 혁명실록은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녀성동맹이 나아

갈 길을 환히 밝혀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보살핌속에서 수령결사옹위의 결정제, 당의 믿음직한 선군혁명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러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에 의하여 사회주의 조국명우에 눈부신 현실이 펼쳐질수 있겠다 하면서 그들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민족민단의 병영을 마련해주시는 절세의 위인 김정일동지를 절대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었다.

녀맹원들과 녀맹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의 항도적력량과 찬란한 미래, 녀성들의 참된 삶이 있다는것을 가슴깊이 새기고

### 무상치료제가 더 큰 은을 내도록

지난 수십년간 우리 녀성들의 《진정집》으로 정당적 불리하며 사회주의보존책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파사해온 평양산원의 자랑스러운 성과속에는 신약 제제과 의료일꾼들의 남모르는 수고와 헌신의 노력도 깃들여져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보건부문 일꾼들은 일을 더 살피고 더 부지런히 애국애군주의 보견제도를 계속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평양산원의 의료봉사사업에서 신약제제과 의료일꾼들이 맡고있는 임무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을 언제나 자각하고있는 과장 고영택, 당세포비서 허미라동무는 미크로과장치를 만들기 위해 미크로과장치의 부품이 필요하며 그 작업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벌였다.

연세기가 약육생살을 보다 높이며 자체의 힘으로 산부인과질환치료에 특수가 있는 의료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문제를 두고 과적인 협의회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 평양 산원 신약 제제과에서

누구나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함께 하였지만 일부 선원들속에서는 과연 우리 힘으로 해낼수 있겠는가고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울려나왔다. 그런 과수원들을 바라보며 과장은 합주어 말했다.

《주어진 조건에서 할수 있는 것만 한다면 그것은 당이 바라보는 참된 보건의료의 자세와 일 본새가 아니라고 봅니다. 결실하고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사회주의보견제도를 빛내이고 생산조직의 해방이 인민들의 생활에 더 잘 미치게 하는것이 우리 보건일꾼들의 역할에 달려있다는것을 언제나 명심합시다.》

그의 열렬한 토로는 모두의 가슴에 선군시대 보건의료이라는 자각을 다시금 새겨주었다. 모두가 새로운 결의를 안고 떨쳐나섰다. 수많은 문헌자료들을 탐독한대 기초하여 낮과 밤을 이어가며 사색과 탐구를 기울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다. 기술혁신의 불결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약제사 김철동무는 주사약자총동맹장치를 만들것을 발기해나섰고 조제사 리문숙동무는 미크로과장치를 만들기 위해 미크로과장치 공작기계 시안을 이 한 과장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며 성실한 탐을 바쳤다.

그들만이 아니었다. 신정순, 박현숙, 김은옥, 리영희동무들이 비롯한 과의 의료일꾼들은 치료에방사업에 절실한 필요성이 있는 의료품들을 새로 만들어내기 위한 좋은 방도들을 내놓고서

###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찾아

여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있다.

학교에서는 리안의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그들과 편견을 맺고 생활하도록 하고있다.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과의 상봉모임, 그들

###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당의 선군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들은 올해 인민의 행복이 활짝 꽃피는 번영의 해로 되게 할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대고조전투장에서 선군시대 조선녀성의 애국적열의를 남김없이 펼쳐내대하여 강조하였다.

원군미풍을 높이 발휘하고 전쟁로병과 영예군인, 후방가족들의 생활을 따듯이 돌봐주며 자녀들을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역군으로 훌륭히 키워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들은 녀맹조직안에 당의 령도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며 각급 녀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녀맹원들과 녀맹원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뒤리에 입성단결하여 부강조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가 울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었다.

### 《수령님 녀성이 꽃피는 강산》

외국 유학생들의 지은글 발표모임 진행

유학정치 《내가 보는 조선》, 기행문 《역사의 땅 어문동을 찾아서》, 수기 《아름다운 주위》, 단상 《유망》, 감상문 《선군소리의 꽃피는 강산》 등을 발표하였다.

유학생들은 작품들에서 탁월한 사상적관찰과 정력적인 령도로 선군조선의 일대 정성

《김정일동지의 노래》, 《만경의 노래》, 《어머님대여》, 《아버지장군님 고맙습니다》, 《구름너머 그리운 장군님네》, 《장군님 베풀어라 달라신다》, 《강성부흥아래로》를 비롯한 우리 나라 노래들도 잘 불러모임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모임이 끝난 다음 외국유학생들은 우리 나라 예술영화 《내가 본 나라》(제4부)를 감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천대군 금성중학교에서는 학생들속에서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존경하며 그들의 생활을 잘 배워주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속에서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똑똑히 배워내는데 경예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깊이 심

의 가정방문 등 다양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는 과정에 학생들속에서는 혁명선배들이 지니었던 당과 수령에 대한 총성성과 조국보위정신을 따라배우려는 기풍이 더욱 첼저히 확립되어가고있다.

본사기자 강진형

들말아안고 편일 불꽃튀는 전투를 벌이고있다.

새수지침의 색도, 강도 등을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활동, 피로회복용료에 대한 생산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 산파실관상용료생산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 정제소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 등 이들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공전선에서 이룩해내고있는 성과들은 대변하고있다.

최근 천덕수평양공업대학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들은 대학 교원학자들의 사업을 맡았으며 매일수고있는 대학일꾼들의 역할과 면수 없이 연결되어있다.

대학의 일꾼들은 교원학자들이 대고조전투장에서 마음놓고 과학연구사업에 전심전신하도록 그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솔선 면서 풀었다. 때문에 대학의 교원학자들은 오늘날도 최첨단들과의 기세도높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공전선에서 계속전진, 계속혁신해나가고있다.

주공전선에 새겨지는 교원학자들의 인력 깊이는 위천과 더불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노력의 대고조전진속도는 날이 갈수록 빨라지는데있다.

본사기자 박옥경

### 혁명적대고조의 《산울림》으로 들끓는다

《김일성상》제작을 경회극 《산울림》공연이 안주에서 편일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산울림》이 일어난 열명은 온 평안남도 들끓게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남편앞에 주저않고 앉고 슬리에 자만하지 않기로 계속되며, 계속전진하는것은 혁명적이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고유한 혁명정신이며 투쟁기풍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남편앞에 주저않고 앉고 슬리에 자만하지 않기로 계속되며, 계속전진하는것은 혁명적이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고유한 혁명정신이며 투쟁기풍입니다.》

평안남도에서 경회극 《산울림》 공연이 안주에서 편일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산울림》이 일어난 열명은 온 평안남도 들끓게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남편앞에 주저않고 앉고 슬리에 자만하지 않기로 계속되며, 계속전진하는것은 혁명적이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고유한 혁명정신이며 투쟁기풍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남편앞에 주저않고 앉고 슬리에 자만하지 않기로 계속되며, 계속전진하는것은 혁명적이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고유한 혁명정신이며 투쟁기풍입니다.》

### 주공전선을 함께 책임지는 립장에서

#### 한덕수 평양 경공업대학 교원학자들

30개나 된다.

평양광산공장에 나간 교원학자들이 맡은 알사탕생산공정 CNC화는 실비체로부러 그 제작, 시운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연구과제를 포괄하고있는 실로 방대한것이였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맡은 과제앞에서 순간의 동요나 주춤도 몰랐다. 수천명에 달하는 설계도를 보며 남았던 기간에 완성할 때에도 현지기술자들과 합심하여 실비제작에 따르는 기술지도를 해나갈 때에도 그들은 승리의 날을 확신하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위대한 설계도가 있었고 그이의 헌명한 령도가 있는 한 승리의 날은 반드시 오고마는 필승의 신념과 확관이 그들 모두의 가슴에 팍 들어차있다.

이들만이 아닌 각지에 달려 나간 교원학자들도 모두가 이런 신념과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며 과학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지난해 15 0일 전투, 1 00일전투기간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시대 교원학자로서의 숭고한 사명감을 간직하고 각 도에 종합적인 식료공

장들을 일떠세우는 사업을 비롯한 나라의 경공업화 결실을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훌륭히 해결하는데서 큰 공헌을 몸소 헤아려보고 크나 큰 공적을 베풀어주시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 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대학들의 교원학자력량도 내세워주시고 기피가 있을 때 마다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주선에 대한 과학연구성과로 보답할 일념으로 이들은 그후에도 주공전선에서 적극 진출하여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훌륭히 해결하였다.

평양밀가루공장에 달려 나간 교원학자들은 실비체비와 CNC화를 위한 설계를 맡아 훌륭히 해결했으며 편이 이 제작을 위한 기술지도에 착수하였다. 또한 과학자들에 걸어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으며 현장방형식체열에서 속팽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지도를 적극 추진하고있다.

평양화학공장에서 교원학자들의 투쟁이 적극화되고있다. 지난해 공장에 달려나가 제분을 설계하는 과학기술적문

평안남도에서 경회극 《산울림》 공연이 안주에서 편일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산울림》이 일어난 열명은 온 평안남도 들끓게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남편앞에 주저않고 앉고 슬리에 자만하지 않기로 계속되며, 계속전진하는것은 혁명적이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고유한 혁명정신이며 투쟁기풍입니다.》

경회극 《산울림》 공연이 안주에서 편일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산울림》이 일어난 열명은 온 평안남도 들끓게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남편앞에 주저않고 앉고 슬리에 자만하지 않기로 계속되며, 계속전진하는것은 혁명적이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고유한 혁명정신이며 투쟁기풍입니다.》

### 듀니지인민통일당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평양 6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무함마드 부쉬하호비서 단장으로 하는 듀니지인민통일당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이 령도의 집에 깃들여있는 불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적

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해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할 때마다 격정에 휩싸이곤 한다.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신 주석께서는 인민의 자유와 행복,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으시었다.

대표단은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과 수령탑 참관하였다.

단장은 감동속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훌륭히 성과를 이룩한 김일성종합대학에 축하를 드린다는 글을 보냈다.

대표단은 또한 김일성고급당학교와 주체사상탑, 만수대창작사, 평양시교외에 있는 따조목장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위훈과 혁신으로 부르는 투쟁의 노래

#### 검덕광업연합기업소 금광광산 기동예술선동대

혁명적대고조의 승결과를 더해주며 사람들을 위훈과 혁신의 한길로 부르는 투쟁의 노래는 조국밖 어디에서나 들려오고있다.

회전발전소건설과 철의 기차 건설, 평양도시 합흥과 백두산선군정년발전소건설... 누구나 가슴마다에 들끓는 오늘날의 시대를 안게 하는 노래는 검덕광업연합기업소 금광광산의 지하마당에서도 울려 퍼지고있다.

비록 10여명밖에 안되는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의 노래이지만 커다란 혁신과 위훈과 투쟁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는 새로운 승상투쟁의 함성으로 울려지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검덕광산과 같은 로동계급의 대표단체로서 당의 혁명적목표가 창조되어야 합니다.》

수십리 떨어진 광산지하

《우리 사회에서는 검덕광산과 같은 로동계급의 대표단체로서 당의 혁명적목표가 창조되어야 합니다.》

수십리 떨어진 광산지하

《우리 사회에서는 검덕광산과 같은 로동계급의 대표단체로서 당의 혁명적목표가 창조되어야 합니다.》

수십리 떨어진 광산지하

《우리 사회에서는 검덕광산과 같은 로동계급의 대표단체로서 당의 혁명적목표가 창조되어야 합니다.》

수십리 떨어진 광산지하

### 빨스까대사관 성원들 장수원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

【평양 6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에드워드 베르크주조 빨스까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18일 삼성구역 조선빨스까친선장수원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을 하였다.

그들은 당면한 영농작업을 다그치고있는 농장원들의 농사

【평양 6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에드워드 베르크주조 빨스까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18일 삼성구역 조선빨스까친선장수원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을 하였다.

그들은 당면한 영농작업을 다그치고있는 농장원들의 농사

【평양 6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에드워드 베르크주조 빨스까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18일 삼성구역 조선빨스까친선장수원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을 하였다.

그들은 당면한 영농작업을 다그치고있는 농장원들의 농사

【평양 6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에드워드 베르크주조 빨스까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18일 삼성구역 조선빨스까친선장수원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을 하였다.

그들은 당면한 영농작업을 다그치고있는 농장원들의 농사

【평양 6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에드워드 베르크주조 빨스까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18일 삼성구역 조선빨스까친선장수원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을 하였다.

그들은 당면한 영농작업을 다그치고있는 농장원들의 농사

【평양 6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에드워드 베르크주조 빨스까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18일 삼성구역 조선빨스까친선장수원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을 하였다.

그들은 당면한 영농작업을 다그치고있는 농장원들의 농사

【평양 6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에드워드 베르크주조 빨스까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18일 삼성구역 조선빨스까친선장수원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을 하였다.

그들은 당면한 영농작업을 다그치고있는 농장원들의 농사

【평양 6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에드워드 베르크주조 빨스까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18일 삼성구역 조선빨스까친선장수원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을 하였다.

그들은 당면한 영농작업을 다그치고있는 농장원들의 농사

【평양 6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에드워드 베르크주조 빨스까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18일 삼성구역 조선빨스까친선장수원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을 하였다.

그들은 당면한 영농작업을 다그치고있는 농장원들의 농사

【평양 6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에드워드 베르크주조 빨스까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18일 삼성구역 조선빨스까친선장수원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을 하였다.

그들은 당면한 영농작업을 다그치고있는 농장원들의 농사







